

구분	강북영광교회 주일강단
날짜	2024년 9월 8일
제목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본문	누가복음 24:1-12

녹취

• 서론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다. 우리는 여기에 확신해야 되겠다. 확신 있는 믿음 가져야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제자들을 우리들을 축복하신 말씀이 있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셨는가 하면 두려워 떠는 제자들과 모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 또 축복하셨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도 힘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다.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행 4:24에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의 핵심 증거하는 것 사탄이 가장 싫어한다. 오히려 사도들, 제자들도 행 4:34에 큰 권능으로 즉 성령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하다가 행 5:40 이하 말씀 보니까 채찍을 맞았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 전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했는데 사도들은 매 맞음을, 능욕받음을 오히려 기뻐했다. 매 맞고 능욕받는 것 오히려 합당한 자로 자청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서 또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 했다. 초대교회를 제자들, 사도들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 가장 싫어했다. 그리스도 자체를 가장 두려워한다. 싫어한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탄이 흑암세력이, 망대들이 꺾이고 무너지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정말 성취하신 다음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확신 가져야겠다.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증거 한 것이다.

• 본문

1.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심 -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눅24:6)

첫 번째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1) 구원의 언약 성취 - 창세기 3장, 원죄 끝내심 (요 19:30)

구원의 언약을 완전 다 성취하셨다. 요 19:30 말씀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했다. 구원의 언약을 다 성취하셨다. 이제 구약에서 드리던 모든 제사들, 짐승의 피, 양의 피, 염소, 송아지 피로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구원의 언약을 다 성취하셨다. 다 끝내셨다. 창세기 3장 우리 인간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 문제 다 끝냈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증거다.

2)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마 16:21, 마 17:22-23, 마 20:17-19)

예수님 공생애 사역에 중요한 때마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다. 중요하게 세 번 말씀 거듭 말씀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

요 베드로의 신앙 최초 고백 이후에 비로소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방인들에게 넘겨 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 아니라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비로소 나타내시고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때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도 살아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유일성의 그리스도 확인한 다음에 또 말씀하셨다.

두 번째로 인자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신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받고 채찍질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나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저와 여러분 믿는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 믿습시다 할 때 그 믿음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근거한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속사역 가장 핵심 되는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이미 말씀하시고 구약에 예언되었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3)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심

오늘 보니까 무덤에 묻히시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시고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구약의 그림자다. 이제 참된 안식일 성취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주인공이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과 무덤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들에게 천사가 말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4)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설교 중에 오순절에 설교하며 증거 한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부활하셨다는 말이다. 그리고 높이셨다는 말은 영광을 받도로 록 하셨다. 승천이다. 즉 부활 승천 후에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 죽지 않고 무덤에 영원히 죽음의 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또 말씀했다. 행 2:34절 이하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시니 이 말은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시다.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교회와 함께하신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신다. 전도자들과 함께하신다. 그것도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다 졸업하시기 축복합니다. 염려, 걱정거리, 문제, 사건 우리 교회도 지금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표다. 오직 기도한다. 오직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염려, 걱정, 두려워할 필요 없다.

5)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요 14:16-18)

언약 확인하고 부활하신 주께서 그리스도신데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시고 항상 함께하신다. 그 놀라운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비밀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서 곁에 계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 놀라운 비밀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함께하시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 얼마나 감사한가? 고아는 부모가 없다. 고아다. 부모가 있긴 있는데 고아원에

서 자라 버림받았다. 고아원에 보면 나이가 성인이 되면 보육원 우리나라 그렇다고 한다. 자립해서 나가라고 한다. 이제 자기가 알아서 살아라고 한다. 참 힘들겠쥬.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있겠지만 부모가 없다. 이게 가장 힘든 것이다. 서러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신다.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히 세계복음화에 증인 되도록, 주역되도록 역사하신다. 보좌의 비밀로 24시 함께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염려, 걱정 하나도 할 것 없다. 교회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24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9시에도 기도하고 그때만 기도하는 것 아니쥬. 24시로 3집 중, 아침에 새벽에 보좌의 능력과 힘 누리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낮에는 모든 사건, 문제, 일, 모든 일 속에 모든 것을 기도 속에 들어가 기도로 가져가서 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아담의 모든 후손, 죄인들, 마귀 자녀들은 다 무덤에 있다. 화장하는데 무덤 없는데 다 무덤에 묻힌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으시다. 무덤문을 여시고 죽음, 사망권세, 사망의 망대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참 생명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자녀의 주권자, 주인, 머리 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 2.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 확신 가져야겠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 1) 믿느냐 안 믿느냐 -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확신, 그 믿음 정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느냐 안 믿

느냐 이전에 안 믿어진다. 듣긴 듣는데 설교도 듣쥬 성경에도 있쥬,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임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니 이게 실제화되지 않고 내 믿음이 되지 않고 누리지 못한다, 많다.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신앙 그 믿음 확신 갖게 되시기를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문제다. 안 믿느냐 믿느냐.

사탄은 하여튼 믿지 못하게 한다. 실제로 성경에도 많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신앙 없다. 신학자들도 안 믿기도 하고 캐나다 연합 총회장 총회가 여러 개인데 연합회의 총회장이다. 벌써 20년 전에 들은 말이다. 캐나다 연합회 총회장이 캐나다 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지 않는다고 했다. 부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캐나다 교회 성도들 어떻겠는가? 사탄의 망대가 씌어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있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 누린다고 할 때 그중 한 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신앙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사탄이 역사한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가장 은혜와 사랑을 받아 치유함 받고 제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 완전 제자쥬.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죽음 슬퍼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묻힌 무덤을 찾아갔다. 그날 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접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접하러 간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무덤에 묻히신 사망에 갇힌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 바르기 위해서 갔다. 말씀대로 안 믿은 것이다. 잊어버린 것이다. 산 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신다. 예수님 벌써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부활절 날 벌써 부활하신 가운데 빈 무덤 세마포만 있는데 그 빈 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찾아가고 향품 바르기 위해서 가고 그랬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 근심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한다. 우리 주

님의 시체 누가 가져갔나, 어디 갔나 통곡한다. 어찌면 잘 안 믿는다는 말이죠. 천사가 말한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았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공생애 사역할 때 중요할 때마다 구원의 구속사역 완성을 위해 십자가 사역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을,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느냐? 천사가 말해줄 때 그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한다. 사도들도 안 믿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빈 무덤이더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 마리아들이 가서 전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빈 무덤 봤다고 그렇게 전하니까 사도들도 허탄한 듯이 들려졌다.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 과연 살아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증거 하니까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헛소리한다는 말이다. 안 믿어진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 여자들이 돌아와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안 믿었다. 안 믿어지는 것이다.

또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말씀 다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한 제자가 글로바다. 두 제자가 슬픈 낯으로 엠마오로 낙심하여 내려간다. 이러할 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동행하는데 질문한다. 부활하신 주께서 질문한다. 왜 이렇게 슬픈 빛을 하고 낙심하며 내려갑니까 하니까 두 제자가 낙심하는 가운데 3일 전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말씀, 복음 가르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 무덤에 묻혔는데 3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교회는 핍박이 일어납니다. 당신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동행하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이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슬픈 빛을 하고 낙심하여 절망하여 내려간다. 오늘 성도님 가운데 혹시 낙심, 절망, 믿음에 절망, 사건, 문제, 어려움 속에 절망하는 성도님 계시면 새 힘을, 부활하신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참된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 걱정할 것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구약의 선지자들 말씀, 예언들 풀어서 설명하신다. 이러할 때 두 제자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졌다. 그래도 못 알아봤지만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났다.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보고 함께 유하라고 한다. 유하는 집에 들어갔다. 떡과 음식을 놓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아멘 했다. 아멘 하는 순간 눈을 열어보니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라졌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이러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어찌 안 믿느냐? 눈을 열어 주셨다. 눈을 열어 주실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동행하신 그리스도 드디어 알아봤다. 확인했다. 예루살렘으로 즉시 돌아와서 그 핍박 속에 아직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핍박 속에 제자들과 많은 하나님 자녀들 제자들에게 확신 있게 말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고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 확신 있게 전했다. 하여튼 잘 안 믿는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다. 의심이다. 의심 많은 도마. 제자들 다른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문을 닫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는데도 들어오셨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몸,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들어오셨다. 평안을 주시고 또 위로와 힘을 주신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알리셨다. 제자들이 봤다. 확인도 했다. 그때 마침 도마는 없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어 말하니까 도마는 나는 믿지 않음, 의심함 그랬다. 내 손을 직접 그의 옆구리에 넣어 창자국, 못자국 손 만져보고 발에 또 손에 못을 박은 데 손발 다 만져보고 옆구리에 다 넣어보고 내가 그렇게 해야 믿겠다. 내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믿지 않음 그랬다. 사탄의 망대 질기다. 믿지 않게 하고 의심하게 한다. 사탄의 망대다. 모든 사탄의 의심의 망대 다 무너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있다. 도마도 마침 함께 있다. 또 예수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는데도 들어오셨다.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빌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축복하셨다. 그리고 말한다. 직접 보여주셨다. 못자국 박힌 손, 옆구리 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말한다. 이리 와서 직접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라. 그러할 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정말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과연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것을 고백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복음, 절대 복음 내용,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건들지 못한다. 승리 못 한다.

또 말한다. 이런 예가 있다. 예수님 마지막 감람산 마지막 40일 동안 마지막 강단에 집중훈련 하신다. 지시하신 산에 제자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산으로 오라고 했다. 그 마지막 강단인 감람산에 행 1:3, 마 28:16-17에 보니까 제자들과 70인 제자들 모였다.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며 기뻐한다. 그런데 그다음 말씀에 또 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아직도 안 믿어지는 자가 있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의 부활 - 믿는 자가 돼라. 확신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며 확신 가지고 믿음 24, 확신 24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후에 41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 누가복음 표현에 이렇게 되어있다.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직접 만나고 확인하니까 너무 기뻐다.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24, 확신 24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한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이 되셨지만 나는 다 있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부활 확신, 확신 24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3) 초대교회 제자들 -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

초대교회는 오직 1,3,8인데 그 내용 속에 1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산 언약 확신했다. 그다음 3은 무엇인가? 감람산 언약,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마지막 강단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말씀하시고 보좌의 능력 약속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약속하셨다. 이속에 우리가 3 감람산 언약 속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함께하시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제자들 확신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8이 무엇인가? 마가다락방 언약. 보좌의 능력 실제로 응답으로 받았다.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날에 성령충만 받은 다음에는 확신했 뿐만 아니라 그 많은 환란, 핍박, 단절, 손해, 죽음이 위협 속에 초대교회 제자들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오직 증인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담대하게 확신하고 확신 가지고 오직 증인 되었다. 오직 증거 했는데 한 개다. 주께 한 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 했다. 확신 24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믿음 오죠. 확신 주신다. 우리가 믿습시다 확신했다 안 온다. 하나님께서 24시, 25시 이러할 때 25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믿어진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의심하는 도마과다. 베드로같이 허탄한 듯이 처음에는 그리고 또 낙심하여 보고도 낙심했다. 제자들 자기 혼자 가지 제자들 다 끌어모아서 갈릴리에 가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져 고기 잡으러 갔다. 우리가 그런 과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하고 그런가? 그런데 하

님 보실 때 다르다. 오직 성령 충만, 감람산에 절대 미션 받은 다음에 약속하신 것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 성령 충만 바람같이 강하게 불 같이 뜨겁게 성령 충만함을 각 사람 각 사람 위에, 앉은 온 집에 온 교회 위에 부으셨을 때 믿음 확신 정도가 아니고 담대하여 오직 하나 성령 충만한 사도들 특징이 무엇인가? 성령충만하여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사도들도 큰 권능으로 특징, 담대하게 주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 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사명자,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교회 가셔도 하고 캠프 가셔도 하고 다락방가셔도 하고 사건, 문제 속에서도 증인 되고.

또 담대하게 증거 한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손을 빌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40년 나면서 앓은병이 된 자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법정에 섰을 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셔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앓은병이가 일어섰느니라. 부활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 했다.

스데반 성령 충만하여 돌 맞아 순교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증거했다. 마지막 증거하고 숨이 끊어져 순교했다. 뭐라고 증거 했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아 좌정하여 계시는데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노라 했다. 이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서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 했다. 그 증거 한 번 하고 순교당해 죽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핍박 속에 제자들 담대하게 복음의 문을 열고 제자 일으키고 핍박 속에 다 흠어졌는데 그 제자들 중에 안디옥에 가서 세계 선교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로 인해 일어나고.

### • 결론

지금 이 시대 오직 유일성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유일성의 복음 사라지는 시대다.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사라졌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강북영광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제자. 그러면 무엇의 증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산 언약. 또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 오직 증인 되는 그래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 화하며 프랑스 선교하며 대구, 칠곡을 이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 대구, 칠곡, 우리의 가정가문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기 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립니다. 특히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 되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보좌 우편에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서 항상 함께하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능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전도자들에게 함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24시로 정말 매일 누리며 항상 확인하고 이 일에 오직 증인 되는 온 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